

## (2018. 6. 23 시행) 서울시 9급 기출문제 [국어(A책형) 해설]

[안 한 섭 선생님]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남대앞)중앙로점 www.okpass.com

###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짹짹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길판지다, 주책이다, 걸음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 1. 정답: ④

해설: ‘넙쿨’과 ‘덩굴’은 복수 표준어이지만, ‘덩쿨’은 비표준어이다. 나머지는 모두 추가된 표준어이다.

###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영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 2. 정답: ①

해설: ‘항의하다’는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이 문장에서 ‘일본에’가 필수 부사어로 쓰였는데, ‘일본’은 무정 명사이므로 부사격 조사 ‘에’를 쓰는 것이 맞다. 만약 사람, 동물과 같은 유정 명사이었다면 부사격 조사 ‘에게’를 쓴다.

오답 해설:

- ②는 ‘요구되어지다’는 이중피동이 쓰인 것이므로 ‘요구되다’로 고쳐야 한다. 따라서 ‘경영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로 고치면 된다.
- ③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주어가 ‘이것은’인데, 서술어가 ‘생각이 든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생각이’가 주어, ‘든다’를 서술어로 하기 위해 ‘이것은’을 빼면 옳은 문장이 된다.
- ④는 가정이나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아도’를 고려하여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보아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치면 된다. 또한 ‘16강 티켓 가능성’이 아니라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으로 고쳐야 하므로,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로 고치면 된다.

### 3. 6·25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 ④ 박완서, 『엄마의 말씀』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꼰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항력]

- ① 중화                      ② 첨가                      ③ 비음화                      ④ 유음화

7. 정답: ③

해설:

‘꽃내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꼰내음]이 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꼰내음]으로 발음된다.

‘바깥일’은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므로, ㄴ첨가가 되어 [바깥닐]이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인해 [바깥닐]이 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바깥닐]로 발음한다.

‘학력’은 비음화(교체)에 의해 [항력]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위의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의 변동은 ‘비음화’ 또는 ‘교체’이다.

오답 해설: ① ‘중화’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뜻한다. ‘꽃내음’과 ‘바깥일’에서는 중화가 일어났으나 ‘학력’에서는 중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8. 정답: ③

정답 해설: 뒤에 조사가 붙는 숫자는 체언 중 수사이다. 따라서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에서 ‘백’은 뒤에 조사 ‘을’이 붙었으므로 수사이다. 뒤에 체언이 오는 숫자는 수식언 중 관형사이다. 따라서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에서 ‘백’은 뒤에 오는 체언 ‘말’을 수식하므로 관형사이다.

오답 해설: ① ‘만큼’은 용언의 관형사형 다음에 오면 의존 명사이고, 체언 다음에 오는 ‘만큼’은 조사이다.

② ‘아니’는 뒤에 용언이 붙으면 부사이고, 독립적으로 쓰이면 감탄사이다.

④ 접미사 ‘-적’이 붙은 말 뒤에 조사가 붙으면 명사이고,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이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면 관형사, 뒤에 오는 용언이나 부사를 수식하면 부사이다.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9. 정답: ④

해설: 민족문학론은 1970년대에, 민중문학은 19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되었다. 나머지는 전쟁 이후의 1960년대에 대한 설명이다.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밭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밭만 매면 돼.  
 손 자: 이 ㉢밭 모두요?  
 할아버지: 왜? ㉣밭이 너무 넓으니?

- ① ㉠: [바슬]
- ② ㉡: [반만]
- ③ ㉢: [받]
- ④ ㉣: [바치]

10. 정답: ①

해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형태소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이 일어난다. 따라서 ‘밭을’은 [바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해설:

- ② ‘밭만’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반만]이 된 후 비음화(교체)가 일어나 [반만]으로 발음한다.
- ③ ‘밭’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받]으로 발음한다.
- ④ ‘밭이’는 연음이 되어 [바티]가 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나 [바치]로 발음한다.

11. <보기>의 비판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 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 ② 식육 생산의 실상
- ③ 동물을 먹는 행위
-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16. 정답: ②

해설: 맨 마지막에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했으므로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을 중시하는 관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용론적 관점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17.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17. 정답: ①

해설: 보조 용언은 본용언을 빼고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보조 용언은 자립성이 없으므로 본용언이 없으면 말이 안 되거나, 본 뜻에서 멀어지게 된다. ①에서 본용언을 빼면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가 되므로 ‘버렸다’가 본용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에서 ‘척하다’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척한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척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에서 ‘보다’를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본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면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므로 보조 용언이다.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에서 ‘가다’는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간다’와 같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8. 정답: ①

해설: 제시된 글은 ‘화랑도(花郎道)’와 ‘화랑도(花郎徒)’라는 용어들의 뜻의 정의를 제시하고, 과거 화랑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체험담은 없다.
- ③ 반론이 없으므로, 반론을 위한 전제도 없다.
- ④ 통계적인 사실 또는 사례는 없다.

19. <보기>의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故國山川을 찌느고자 허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 말동 허여라

-김상헌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19. 정답: ①

해설: 삼각산(三角山)은 인왕산이 아니라 ‘북한산’이다.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 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컥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 )음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써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 ② 서울
- ③ 거제
- ④ 무진

20. 정답: ④

해설: 이 소설의 제목을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소설 <무진기행>의 마지막 부분이다. 돈 많은 아내와 장인의 도움으로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나’는 서울을 떠나 무진으로 내려간다. 그곳에서 ‘나’는 음악 교사인 발랄한 처녀 하인숙을 만난다. ‘나’는 무진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하인숙에게서 ‘나’의 옛 모습을 발견하고 사랑을 느끼고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다음날 ‘나’는 상경을 요구하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갈등한다.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작정한 후, ‘나’는 하인숙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쓰고 이내 찢어버린다. 서울로 가며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소설은 끝난다.